DBpia

신라말 고려초 청송 지역의 호족

Powerful Clan in the Cheongsong Region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저자 (Authors) 정동락
Jung, Dong-lak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29), 2013.12, 83-121(39 pages)
SILLASAHAKPO (29), 2013.12, 83-121(39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375

APA Style 정동락 (2013). 신라말 고려초 청송 지역의 호족. 신라사학보(29), 83-1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말 고려초 청송 지역의 호족*

정 동 락**

Ⅰ. 머리말
Ⅱ. 청송 지역의 호족
Ⅲ. 청송 지역의 호족과 선종불교
Ⅳ. 맺음말

【국문초록】

나말려초는 우리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 중 하나였다. 신라의 구질서가 쇠퇴하고, 후삼국을 거치면서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전환되어 나갔다.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변동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사회의 역동성이 어떤 시기보다 강열하게 표출되었다. 이 시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변동을 이끈 주인공을 흔히 豪族이라고 한다. 호족은 새로운 사상조류였던 禪宗과 밀접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은 청송(진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호족인 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홍술은 聞韶郡의 吏職者(村主)출신으로, 나말려초의 격동기에 眞寶縣의 성주로 성장하였다. 이후 광역의 행정단위였던 의성지역으로 옮겨 그곳을 대표하는 호족이 되었다. 하지만, 경상도 북부 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과정에서 견훤의 침공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선필은 慶州崔氏 출신으로, 신라에서 파견된 眞安縣의 지방관에서 장군(호족)으로 자립하였다. 그

* 이 글은 청송군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는 경상도 북부지역에 웅거하면서 고려와 신라의 외교 문제에 많은 공을 세웠다. 특히, 930년 古昌전투의 승리에 일조하면서 태조로부터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한편, 선필은 선종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9산선문 중 迦智山門 출신의 禪僧인 眞空대사 □運(855~937)을 지원하였다. 특히, □운은 927년에서 929년까지 대략 2~3년 정도 선필의 후원을 받으면서 진안현의 사원에 머물다가, 태조의 초청으로 小伯山寺로 이석했다. □운이 머문 지역은 920년에서 930년대를 전후한 후삼국 쟁패기에 고려·후백제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 지역에는 태조와 최선필 등의 호족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이 두 세력의 연결을 매개한 한 인물이 □운이었다. □운과 선필 등의 결연은 나말려초 선종과 호족의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제어 : 신라말 고려초, 청송 지역, 豪族, 洪術, 善弼, 선종불교, 眞空대사

Ⅰ. 머리말

청송 지역이 우리 역사상 크게 부각됐던 시기[1]는 신라말 고려초(이하 나말려초)[2]였다. 이 시기는 한국사에서도 가장 격동적인 전환기이다. 신라에서 고려로의 왕조교체와 함께, 정치·사회·경제·사상 등 모든 분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격변의 시기였다. 이에 고대적인 체제

1) 조선초기에도 청송 지역은 크게 주목되었다. 세종의 비였던 昭憲王后로 인해 청송도호부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거듭된 왕명(세종과 세조)으로 속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된 드문 사례라고 한다.

2) 신라하대, 나말려초, 후삼국시대는 연구자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시대 용어이다.(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 신호철,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2008 ; 권영오, ≪新羅下代政治史硏究≫, 혜안, 2011) 이 글에서는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가 붕괴되고 중세사회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보기도 한다.[3] 나말려초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변동을 이끌었던 주인공은 지방세력이었다. 이들을 흔히 豪族으로 정의하며,[4] 그 시기를 '호족의 시대'라고 한다.[5] 아울러, 사회변동의 사상적인 기반이 된 것이 새로운 불교사조인 선종이었다. 호족과 선종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6]

우리는 청송 지역에서 나말려초의 사회변동을 이끌었던 걸출한 호족을 만날 수 있다. 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甫城府)將軍 善弼이 바로 그들이다.[7]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와 후백제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쟁패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청송을 비롯한 경상도 북부지역은 王建과 甄萱의 각축장이었다. 홍술과 선필은 려·제의 쟁패 속에서, 922년에 홍술, 930년에 선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들은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선필의 활동으로 진보 지역은 보성부로 邑格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암성장군 선필은 선종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3) 金哲俊,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4)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5)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6)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歷史學報≫ 188, 2005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鄭東樂,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鄭東樂, <新羅 下代 禪宗史 硏究動向>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7) 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硏究≫ 10, 1960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 尹熙勉, <新羅下代의 城主·將軍-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韓國史硏究≫ 39, 1982 ;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景仁文化社, 2005 ; 邊東明, <城隍神 金洪術과 義城> ≪歷史學報≫ 189, 200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는 禪僧인 眞空대사와 결연하여 지원하였다.[8] 진공대사는 9산선문 중 迦智山門 출신으로 스스로 道義선사의 제자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선필은 물론 高鬱府(영천)의 호족인 王能長과 태조 왕건의 귀의도 받았다. 진공은 대략 927년에서 929년까지 선필의 지원으로 재암성에 머물렀다. 이후 왕건의 초빙으로 豊基 小伯山寺(毗盧庵)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비로암에 머물던 때는 후삼국의 戰勢가 고려로 기우는 일대 전기를 이룬 古昌전투[9]가 벌어진 시기였다. 선필은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진공대사와 태조의 결연은 선필을 매개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나말려초 청송 지역은 홍술과 선필 등 걸출한 '호족'과 진공대사라는 '선승'이 활동하면서 격동기를 이끌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홍술과 선필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진공대사와 선필의 결연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에서 청송 지역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寶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2008 ; 권순철·김현정, <榮州 毘盧寺 樓閣新築敷地 발굴조사의 성과> ≪新羅史學報≫ 13, 2008 ;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9) 李炯佑, <古昌地方을 둘러싼 麗濟兩國의 각축양상> ≪嶠南史學≫ 창간호, 1985 ; 류영철, 2005, 앞의 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Ⅱ. 청송 지역의 호족

1. 진보성주 홍술

나말려초 청송(진보) 지역의 대표적인 호족은 진보성주 홍술과 재암성장군 선필이었다. 그 중 사료상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홍술이다. 한데, 이 시기에는 3명의 홍술이 사료상 존재하고 있다. 즉, 고려 개국공신인 洪儒의 초명이 洪術(弘述)이며, 진보성주 홍술, 의성부 성주장군 홍술 등이 그들이다.

(A)-(1) ① 洪儒의 초명이 術인데, 義城府人이다.(≪고려사≫ 권92, 홍유전)
② [918년] 貞明 4년 무인 여름 6월에 將軍 弘述, 白玉, 三能山, 卜沙貴{이는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知謙의 젊을 때 이름이다} 네 사람이 몰래 모의하고 밤에 태조의 사저에 와서 말하였다.(≪삼국사기≫ 권50, 열전 궁예)

(B)-(1) [922년, 태조 5년] 겨울 11월 신사(5일)에 眞寶城主 洪術이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므로 元尹 王儒와 卿 含弼 등을 보내어 그를 慰諭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5년 11월)[10]
(2) [923년, 태조 6년] 겨울 11월 무신(8일)에 眞寶城主 洪術이 아들 王立을 보내 갑옷 30벌을 바치니, 王立을 元尹에 임명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6년 11월)

(C) [929년, 태조 12년] 가을 7월 … 辛巳(14일)에 甄萱이 甲卒 5천명으로 義城府를 침략하니 城主將軍 洪術이 전사하였다. 왕이 통곡하

10) ≪삼국사기≫ 권12, 경명왕 6년 정월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5년 11월. 이하 사료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 여 말하기를 “내가 左右手 잃었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12년 7월 신사)

洪儒는 초명이 홍술이고 義城府人이었다. 그는 일찍이 의성부를 떠나 궁예휘하에 들어갔다가, 태조 추대의 정변을 주도했다.[11] 이후 태조의 막료로 활동하였으며, 사후에 忠烈의 시호를 받았다.[12] 994년(성종 13) 太師로 추증되어 태조의 廟廷에 배향되었다.[13] 그는 태조의 26비인 義城府院夫人 洪氏의 아버지였다.[14] 홍유는 초명이 홍술일 뿐 성이 洪氏인데 비해, 홍술은 金씨였다.[15] 따라서 홍유는 진보성주 또는 의성부 성주장군 홍술과는 별도의 인물이었다.

다음으로 홍술은 (B)‘眞寶城’의 성주, (C)‘義城府’의 성주장군으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각기 다른 인물로 파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16] 하지만, 922·3년과 929년의 6~7년 정도 짧은 시기에 동일 인명의 洪術이 유력 호족으로 등장하므로, 동일인으로 봐야 할 듯하다. 하지만, 홍술의 출신지역인 진보성과 의성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D)-① 金洪術은 고려 태조 때 吏에서 城主將軍이 되었다.(≪경상도지리지≫ 안동도, 의성현 인물)
> ② 城隍祠는 … 김홍술의 외모가 고려 태조와 흡사하였는데, 백제의 견훤과 싸우다가 패하여 전사하였다. 이에 이곳에서 제사지낸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의성현 사묘 성황사) / 金洪術은 太祖

11)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124~125쪽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硏究≫, 一潮閣, 1996, 122~123쪽.
12) ≪고려사≫ 권92, 열전5, 洪儒전.
13) ≪고려사≫ 권3, 성종 13년 4월 ; ≪고려사≫ 권5, 현종 18년 4월 ; ≪고려사≫ 권60, 예지, 길례대사.
14) ≪고려사≫ 권88, 后妃, 義城府院夫人.
15) 李樹健, 앞의 책, 1984, 124쪽.
16) 황선영,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78쪽 주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때에 吏로써 城主가 되었다.(같은 책, 인물)
③ 史書에 말하기를 金洪術은 義城人이다.(≪澹谿集≫ 권7, 城隍祭迎送神歌)
④ 將軍은 성은 金이요, 이름은 洪術로서 義城人이다.(≪列邑院宇事蹟≫, 의성현 충열사사적)
⑤ 金洪術은 聞韶의 吏이다.(≪掾曹龜鑑≫ 권2, 觀感錄)

홍술의 출신지는 대개 '義城人'으로 기록하였다. (D)-①·②에는 의성현의 인물조나 사묘조에 수록하였으며, ③·④에는 '의성인', ⑤의 ≪연조귀감≫에서는 '聞韶 吏'라고 밝혀놓았다. 조선시대의 사료로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나, 그를 '義城의 吏'라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에는 홍술이 '진보성'의 성주로 나오다가, 이후에는 '의성부'의 성주장군으로 기록되었다. 이를 사료상의 오류로 보고 홍술은 원래부터 진보가 아니라 의성에 있었다고 파악키도 한다.[17] 최근에는 홍술의 세거지인 진보현이 의성부로 승격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라 진보현의 治所가 오늘날 의성읍이었다는 견해를[18] 받아들여, 의성부는 진보현과 문소군을 통합하여 신라 진보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19] 더 나아가 신라 진보현(성)이 곧 의성부라고도 한다.[20] 이와 달리 홍술이 진보현에서 호족으로 자

17) 池內宏, ≪滿鮮史硏究≫(中世) 2책, 1937, 25쪽 ; 류영철, 2005, 앞의 책, 104쪽 재인용.
18) 金泰植, <≪三國史記≫地理志 新羅條의 史料的 檢討-原典 편찬시기를 중심으로->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28~ 232쪽.
19) 정요근,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2009, 187~191쪽 ; 정요근, <서평 : 구조와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고려시기 지방제도를 복원하다-윤경진,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424~425쪽.
20) 전덕재, <고대 의성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9, 2012, 23~26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립하여, 의성부로 옮긴 것이라는 주장이다.[21] 이 경우 홍술을 聞韶郡의 영현인 '진보현의 (眞)村主 출신'으로 파악한다. 홍술은 縣司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吏로 활동하다가 자립하여 성주장군이 되었으며, 의성으로 移居했다는 것이다.[22]

이처럼 홍술의 출신지가 의성(문소군)인지 진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현전하는 사료에 의하면 홍술은 문소군의 吏職者(촌주) 출신이었다. 이후 영현인 진보현으로 진출해 그곳의 성주로 자립했다가,[23] 자신의 출신지인 문소군으로 옮겨 성주장군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문소군에서 진보로 옮긴 시기는 889년(진성여왕 3) 농민봉기 후 고려에 귀부하는 922년 사이였을 것이다. 대체로 900년 후백제, 901년 후고구려 건국 이후에 진보지역을 대표하는 호족으로 성장했던 듯하다.

진보성주 홍술은 922년 11월에 使者를 보내 고려에 귀부하였다. 918년 9월 상주 加恩縣의 阿字盖의 귀순, 922년 6월의 下枝縣(안동 풍산) 장군 元奉의 來投 직후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는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 (E) 同光 2년(924) 가을 7월에 (견훤)이 아들 須彌强을 보내어 大耶·聞韶 두 城의 군사를 일으켜 曹物城을 공격케 하였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태조를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또 싸웠으므로 수미강이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삼국사기≫ 권50, 견훤전)

(E)는 924년 7월에 벌어진 소위 (1차)曹物城[24] 전투의 상황이다. ≪고

21) 旗田巍, 尹熙勉, 文暻鉉, 류영철, 邊東明 등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22)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57쪽 및 63쪽 ; 邊東明, 앞의 논문, 4~7쪽, 2006.
23) 崔鍾奭,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 2004, 서울대 국사학과, 132~133쪽.
24) 류영철, 앞의 책, 2005, 75~9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려사≫·≪고려사절요≫에는 大耶·聞韶 2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신 견훤의 아들인 수미강과 함께 良劍이 출전했고, 태조가 장군 哀宣과 王忠을 보내 구원했으나 애선이 전사한 전황을 추가하였다.[25] 924년 합천에서 의성에 이르는 지역이 후백제의 수중에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대야성은 920년 10월에 견훤이 공취했다.[26] 문소성도 920년 이후 924년 이전에 후백제가 점령했을 것이다. 혹시 진보성주 홍술은 922년 즈음 문소성이 함락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고려에 귀부한 것은 아닐까?

홍술이 '사자'를 파견한 사실은 휘하에 다수의 세력을 거느렸음을 시사한다. 홍술은 휘하에 진보현과 인근의 在地官班[27]을 포섭한 세력가였을 듯하다. 홍술이 귀부하자 왕건은 元尹 王儒와 卿 含弼 등을 보내어 그를 위무하였다. 왕유는 원래 '朴儒'였으나 王姓을 하사받았으며,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태조의 妃父였다.[28] 태조가 홍술의 귀부를 무겁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술은 귀부 이듬해인 923년 11월에 아들 王立을 보내 갑옷 30벌을 바쳤고, 태조는 왕립을 元尹에 임명하였다. 왕립은 개경에 머물면서 숙위했을 법하다. 사자를 보내 降附하고, 아들을 보낸 것은 溟州將軍 順式과 유사하다. 왕순식은 922년 7월에 長子 守元을 보내 귀부하고, 8월에 아들 長名을 보내 숙위케 하였으며, 928년 정월에 직접 개경으로 入朝하였다. 왕건이 왕립에게 元尹을 하사한 점도 주목된다. 후삼국 통일 이전 원윤은 호족의 대소를 가르는 기준으로,[29] 진골과 육두

25) ≪고려사≫ 권1, 태조 7년 7월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7년 7월.
26) ≪고려사≫ 권1, 태조 3년 10월.
27)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硏究≫ 23, 1979.
28) 全基雄, <羅末麗初 地方出身 文士層과 그 역할> ≪釜山史學≫ 18, 1990, 11~15쪽.
29) 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 ≪朝鮮學報≫ 41, 1966, 37~39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품의 차이에 버금간다고 한다.[30] 아들에게 원윤을 준만큼 홍술에게는 더 높은 관계를 내렸을 것이다.[31] 홍술에게 縣보다 상급 행정단위인 郡이나 州의 호족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줬던 것이다.[32]

진보현은 고려가 소백산맥을 넘어 경주로 진출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전략적 가치가 높았다. 더군다나 홍술은 진보현을 거느리던 문소군 관내에서도 유력한 호족이었다.[33] 문소군이 견훤의 점령 하에 있는 상황에서 진보현의 가치는 더욱 높았을 것이다. 태조의 입장에서는 경상도 북부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해 후백제와의 경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홍술도 견훤의 문소성 장악으로 안위가 염려되던 상황을 타개하고 세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조와 홍술 양자 모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923년 11월까지 진보성주였던 홍술은 929년에 의성부의 성주장군으로 다시 등장한다. 홍술이 의성부로 이거한 시기는 923년에서 929년 사이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927년(태조 10) 이후 진보성을 견훤에게 '약탈'당했기 때문,[34] 923년 11월 직후 '왕건의 명령'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의성부로 옮겨온 것,[35] 923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왕건의 권유 내지 후원'으로 의성부로 진출했을 것이라고도 한다.[36] 반면, 925년 10월의 (2차)曹物城 전투와 관련하여 고려정부가 조물성을 방비할 목적으로 홍술을 의성지역으로 '파견'한 것,[37]

30) 황선영, 앞의 책, 2002, 175~176쪽.
31)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5쪽 ;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5~6쪽.
32)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5~6쪽.
33)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5쪽 ;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6~7쪽.
34) 旗田巍, 앞의 책, 1972, 21쪽.
35)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3쪽.
36)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9~10쪽.
37) 文暻鉉, ≪新羅史研究≫,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333~33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혹은 후백제와의 쟁패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의성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이뤄진 고려정부의 선택이라고도 한다.[38]

홍술이 의성부로 옮긴 시점은 925년 10월의 2차 조물성 전투[39]가 끝난 이후였을 것이다. 이 전투는 태조와 견훤이 직접 출전하였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고 양국의 화친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때 태조는 견훤이 연장자이므로 상보(尙父)라고 칭하였다.[40] 화친은 926년 4월 견훤이 인질로 보낸 眞虎가 병사하면서 깨지고 말았다.[41] 그 뒤 양국은 경상도 지역을 두고 다시 치열하게 각축한다. 920년 10월에 견훤에게 공취당한 대야성에 대한 공방도 포함된다. 927년 7월 태조가 在忠, 金樂 등을 보내 大良城(합천)을 공격해 장군 鄒許祖 등 30명을 포로로 잡았다.[42] 이로 볼 때 홍술이 의성부로 옮긴 시점은 아무래도 (2차)조물성 전투 후 고려와 후백제가 맺은 화친이 깨지는 926년 4월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927년 7월 대야성을 회복하기 이전에 문소군을 되찾고 의성부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싶다.

홍술의 이거와 함께 문소군과 古昌郡의 영현인 高丘縣을 합하여 義城府[43]로 승격하였다. 그러면서 의성군 금성면에서 의성읍으로 治所의 이동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44] 이거 당시 홍술의 세력이 의성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였기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 인정해준 조치였다

38) 류영철, 앞의 책, 2005, 104쪽 및 250쪽, 292쪽.
39) ≪고려사≫ 권1, 태조 8년 10월 을해.
40) 류영철, 앞의 책, 2005, 69~91쪽.
41) ≪고려사≫ 권1, 태조 9년 4월 경진.
42) ≪고려사≫ 권1, 태조 10년 7월 무오.
43) ≪삼국사기≫ 권34, 聞韶郡 및 高丘縣.
44) 의성군 금성면의 金城山古城이 召文城(聞韶城)으로 신라 문소군의 치소였으나, 이후 의성읍으로 치소가 이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정요근, 앞의 논문, 2009, 188쪽 ; 전덕재, 앞의 논문, 2012, 24~26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는 견해도 있다.[45] 하지만, 그가 의성부로 옮기고 난 뒤 고려 정부를 배경으로 의성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46] 홍술은 진보성에서 자신의 핵심 세력을 대동하고 이거하였을 것이다.[47] 그리고 자신의 수완을 십분 발휘하여 왕건의 의도에 부합되게 견훤에 의해 와해된 의성지역을 재건해 나갔을 듯하다. 의성은 원래 자신의 연고지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성주장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재지세력도 그를 쉽게 받아들였을 법하다.

홍술이 의성부로 이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태조는 조물성 전투 과정에서 鳥嶺을 통해 聞慶-豊山-義城으로 이어지는 의성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이에 한때 견훤에 의해 점령되었던 문소군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듯하다. 그 적임자로 문소군의 영현에서 호족으로 성장한 홍술을 떠올렸으며, 문소군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홍술이 태조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소군으로의 이거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홍술로서도 태조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진보현보다 상급행정 단위였던 문소군이 지역적으로 넓었으며, 원래 자신의 출신지였기 때문에 세력을 확대하기에도 유리하였다. 문소군 이거는 태조의 요청에 홍술이 호응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진보에서 의성부로 옮긴 홍술은 의성지역을 장악하고, 경상도 북부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 강화에 협조했을 것이다. 이 시기 고려·후백제 양국은 경상도의 신라지역을 두고 일진일퇴의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전체적인 양상은 927년 9월 公山전투에서 고려가 대패하

45)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3쪽 ;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9쪽.
46) 류영철, 앞의 책, 2005, 292쪽.
47)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8쪽, 주2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는 등 후백제가 전세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은 930년 古昌 전투의 승리로 고려가 정국을 주도하기까지 지속되었다.[48] 홍술도 경상도 북부지역에 대한 후백제의 進攻을 저지하고, 친고려적인 호족들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진력하였을 것이다.[49] 홍술의 걸출한 능력은 이를 가능케 하였으며, 그에 대한 태조의 신뢰는 쌓여갔다.[50] 의성부는 후백제의 공세를 막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의성부의 재탈환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929년 7월 辛巳(14일)에 견훤이 정예병 5천을 동원하여 의성부를 공격하였다. 견훤의 공격에 맞선 홍술은 역부족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비보를 접한 왕건은 통곡하면서 "내가 좌우의 손을 잃었다"고 슬퍼하였다. 태조가 홍술을 두텁게 신임하였음과 의성부의 전략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술의 전사 직후 왕건은 9월에 岡州(영주)에 행차하여 경상도 북부지역을 안정시켰다.[51] 견훤은 계속하여 10월에 高思葛伊城(문경)을 공격코자 하니 城主 興達이 병들어 죽었고,[52] 12월에 加恩縣(문경 가은)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53] 뒤이어 12월에 古昌郡(안동)을 포위 공격하면서 931년 1월까지 소위 '古昌전투'가 벌어진다.[54] 의성부 전투는 이후 벌어지는 경상도 북부지역을 둘러싼 려·제 양국의 大會戰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의성부는 홍술의

48) 류영철, 앞의 책, 2005, 170쪽.
49)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10쪽.
50) 홍술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왕건이 '좌우수를 잃었다'고 통곡한 것과 의정부의 성립은, 홍술이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고려의 영향력 확대와 후백제의 진공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1) ≪고려사≫ 권1, 태조 12년 9월 을해.
52)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2년 10월.
53) ≪고려사≫ 권1, 태조 12년 10월.
54) ≪고려사≫ 권1, 태조 12년 12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전사로 후백제에 함락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 그 시기는 930년 1월 고려가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였을 것이다.[55] 933년 5월에 征南大將軍 庾黔弼이 의성부에 주둔한 사실을[56]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홍술이 전사한 곳은 '皇帝峯 아래의 烏川洞'이었다.[57] 그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고을을 수호하는 城隍神으로 숭앙되었다.[58] 의성지역의 유력층은 그가 전사한 자리에 성황사를 세우고 매년 봄가을로 향사를 지내면서, 지역민들을 결속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관철시켜 나갔다.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는 조선후기인 1706년에는 성황사를 유교적 성격의 사당인 忠烈祠로 전환하고 그를 배향하였다.[59] 홍술은 나말려초에는 호족, 고려시대에는 성황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성인으로 변모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를 숭앙하는 지역민의 인식의 기저에는 변함이 없었던 셈이다.

2. 재암성장군 선필

진보성주 홍술에 뒤이어 등장하는 인물이 재암성장군 선필이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F)-(1) 경순왕 4년(930) 봄 정월에 <u>載巖城將軍 善弼</u>이 고려에 항복하니(降), 태조가 그를 후한 예로 대우하고 상보(尙父)라고 칭하였다. 처음에(初) 太祖가 신라와 通好코자 할 때 선필이 이를 인도하여 주

55) ≪고려사≫ 권1, 태조 13년 정월 및 2월.
56) ≪고려사≫ 권92, 열전 庾黔弼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6년 5월.
57) ≪列邑院宇事蹟≫, 의성현 충열사사적 ; ≪輿地圖書≫ 경상도 의성 단묘.
58)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9쪽 주30.
59)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21~2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항복한 것이다. 그가 공이 있고 또한 나이가 많은 점을 생각해, 그를 총애하고 표창한 것이다.(≪삼국사기≫ 권12, 경순왕 4년 정월)

(2)-① 태조 13년(930) 봄 정월 丁卯(2일)에 載巖城將軍 善弼이 來投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13년 정월)

② 태조 14년(931) 봄 2월 … 辛亥(23일)에 왕(태조)이 신라에 행차할 때 50餘騎를 거느리고 畿內에 이르러 먼저 將軍 善弼을 파견하여 起居를 문안하였다.(≪고려사≫ 권2, 태조 14년 2월)

③ 善弼은 新羅 載巖城將軍이었는데 당시 群盜들이 다투어 일어나 약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태조가 신라와 通好코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 이를 근심하였다. 선필이 태조의 威德을 보고 마침내 歸款하고 계책으로서 신라와 통호할 수 있게 하고, 인하여 賊徒를 막는데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이후 그 城을 들어 來附하니 태조가 후하게 대우하고, 나이가 많은 점을 생각하여 상보(尙父)라고 칭하였다.(≪고려사≫ 권92, 열전5, 王順式 附 善弼)

(3) 태조 13년(930) 봄 정월에 載巖城將軍 善弼이 來投하였다. 처음 왕(태조)이 신라에 통호하려 할 때 賊徒들이 일어나 길이 막히자 왕(태조)이 이를 근심하였다. 선필이 기묘한 계책으로 인도하여 통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來朝하니 후한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나이가 많으므로 상보(尙父)라고 칭하였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 13년 정월)

(4) 國父 崔善弼 大將軍은 法城이 견고한 성벽과 자비로운 집의 주춧돌과 같았는데, 靈境에 머물 것을 청하고…(<풍기 비로암 진공대사비>)

(G) 海良院夫人은 海平人으로 大匡 宣必의 딸이다. 史書에서 그 姓氏를 잃어 버렸다.(≪고려사≫ 권88, 열전 1, 海良院夫人)

선필은 930년 정월에 고려에 내투한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데, 이 시기에는 2명의 선필이 사료에 등장한다. 善弼은 재암성장군으로, 宣必은 왕건의 제29부인인 海良院夫人의 父로 大匡으로 나온다. 비록 善弼, 宣必 등으로 한자 표기가 다르지만 동일인으로 보기도 한다.[60] <진공대사비>(F-4)에 의하면 善弼은 崔善弼[61]로 '崔씨'였다. 반면, 宣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必의 딸인 해량원부인은 성씨를 잃어버렸지만 海平人이었다. 해평인 선필은 해평김씨로 金萱述과 관련지우기도 한다.[62] 따라서 宣必과 善弼은 다른 인물이었다.

善弼은 성씨를 모칭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경주최씨였을 가능성이 높다.[63] ≪고려사≫ 열전에는 그가 '신라' 재암성장군이라고 했다.(F-2-③) 이는 선필이 처음에는 신라에서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태조가 신라와 通好할 때 인도해 주었고, 왕건이 신라 경주를 방문할 때 먼저 입성한 것으로 보아 신라와 밀접하였다. '재암성'이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고, ≪고려사≫ 지리지에서 보인다. 즉, 재암성은 甫城府의 별칭으로, 고려 초에 진보현과 眞安縣 두 현을 합하여 설치했다.[64] 진보현에는 진보성주인 홍술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선필이 근거한 곳은 진안현이었던 듯하다. '장군'이라는 직책도 군사지휘관이라기보다 진안현의 지방관(縣令 또는 少守)이었을 것이다.[65] 선필은 왕경의 경주최씨로 진안현에 파견된 지방관 출신에서 장군(호족)으로 성장한 인물로 추정된다. 선필은 왕건(877~943)보다 연로하였으므로, 930년에는 최소한 50대 중반이 넘었을 것이다. 견훤이 왕건보다 10여세 정도 많아 상보로 불렸으므로, 선필은 견훤과

60)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0, 114쪽 ; 최규성, ≪高麗 太祖 王建 硏究≫, 주류성, 2005, 322~323쪽.

61) ≪삼국사기≫·≪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 보이는 '善弼'과 <진공대사비>의 '國父 崔善弼'은 동일인으로 파악된다.(崔柄憲, 앞의 글, 1978, 434쪽 ;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1쪽 ; 李樹健, 앞의 책, 1984, 62쪽, 주65 ; 노대환, 앞의 글, 2008, 216쪽)

62) 李樹健, 앞의 책, 1984, 132쪽.

63)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1쪽.

64) ≪고려사≫ 권87, 禮州 甫城府조.

65) 旗田巍, 앞의 책, 1972, 20쪽 ;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0쪽 ;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1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비슷한 연배였을 것이다.

> (H)-① 신라가 쇠약해진 말기에 정치가 잘못되고 백성이 흩어져 王畿 밖의 州縣들이 반란세력에 따라 붙는 자가 거의 반에 이르고 遠近에서 群盜가 벌떼처럼 일어나 그 아래에 백성들이 개미처럼 모여들었다.(≪삼국사기≫ 권50, 궁예전)
> ② 효공왕 5년(905) 8월에 弓裔가 병사를 보내 우리(신라)의 邊邑을 침략하여 竹嶺 동북쪽에까지 이르렀다. 왕이 나라의 강역이 나날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걱정하였으나,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여러 城主에게 명하여 신중을 기해 출전하지 말고, 견고히 수비토록 하였다.(≪삼국사기≫ 권12, 효공왕 5년 8월)

(H)-①은 弓裔가 竹州의 적괴 箕萱에게 의탁하는 891년 즈음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다. ②는 905년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신라의 竹嶺 동북쪽까지 영토를 넓혔을 때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城主들은 신라왕의 명령을 받는 지방관을 통칭한 것이다. 하지만, 태수나 현령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성주로 불린 점에서 신라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의 유력자로 정착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66] 신라말 군도의 봉기와 후백제 및 태봉의 확장 과정에서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들은 점차 신라로부터 이탈해 나갔다. 선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립하여, 진안현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선필은 930년 정월에 고려로 '來投'했다고 한다. 그가 고려에 귀부한 것을 '降' 혹은 '來投', '來附', '來朝'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降'은 신라의 입장에서, 내투나 내부는 고려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내조'는 고려 조정에 직접 방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필은 고창전투에 출전한 왕건을 찾아 항복했기 때문에 내조라 했을 법하다.

66) 윤경진, <나말려초 성주(城主)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실≫ 40, 2001, 97~9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한데, 선필은 이미 내투 이전부터 태조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는 930년 정월 이전에 고려에 귀의했거나 최소한 친고려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선필이 고려와 연결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920년 정월에 태조와 경명왕의 교빙으로 파악하거나,[67] 928~9년 무렵의 상황으로 보기도 한다.[68] 신라와 고려의 통호를 막았던 존재로 적시된 '群盜, 賊徒'가 어떤 세력인지가 관건이다. 후백제가 경상도 북부지역으로 진출한 사건과 연관된다면 928~9년 무렵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920년일 가능성이 높다.

선필의 열전에 따르면 군도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신라와 통호한 후에도 적도를 막는데 여러 차례 공이 있었다고 했다. 또 (F)-①의 '처음(初)'이라는 표현도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선필은 930년 귀부하기 훨씬 이전에 고려 태조와 접촉했던 듯하다. 이로 보아 선필은 920년 신라와 고려의 통호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라 지방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선필은 920년 신라와 고려가 통호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태조와 인연을 맺었다. 선필이 적도를 막는데 여러 차례 공이 있었다고 한 것은 고려와 신라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有功일 가능성이 높다.

930년 정월에 선필이 고려에 내투할 당시에는 眞安城장군이었을 것이다. 이때는 고려와 후백제의 古昌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양국의 쟁패과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전투였다.[69] 927년 9월 후

67) 최규성, 앞의 책, 2005, 323쪽 ;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19쪽.

68)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 1996, 74~78쪽 ; 邊東明, 앞의 논문, 2006, 11쪽, 주42.

69) 李炯佑, 앞의 논문, 1985, 64~72쪽 ; 류영철, 앞의 책, 2005, 115쪽 및 127~155쪽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112쪽 ; 李基東,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內亂期 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백제의 경주침공과 경순왕의 옹립, 公山전투 대패 이후 후백제의 신라권역에 대한 공세는 한층 강화되었다. 반면 고려는 수세를 면치 못한다. 이러한 양상은 929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후백제 견훤은 929년 12월에 古昌郡(안동)으로 진격해 포위하였다. 경상도 북부지역의 고려군을 축출하고, 竹嶺路의 교통 요충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왕건은 죽령을 넘어 풍기와 영주, 봉화를 거쳐 禮安鎭에 이르렀다. 그리고 929년 12월에서 930년 정월까지 '古昌전투'가 벌어졌다.

'猪首峰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황이 고려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시기에 930년 1월 2일 선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선필이나 태조 모두에게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내투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20일 뒤인 1월 21일에 왕건이 甁山에, 견훤이 石山에 진을 치고 '甁山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고려는 후백제의 侍郎 金渥을 사로잡고 8천 여 명을 사살하는 등 대승을 거둔다. 고창전투의 승리는 庾黔弼 등 고려군과 金宣平 등 古昌郡의 재지세력의 협조가 크게 작용했다. 더불어 선필의 귀부가 고려군의 사기를 높이고 인근 지역 호족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등 팽팽하던 전황을 기울게 했던 듯하다. 어쩌면 선필이 병산전투에 군사를 이끌고 지원군으로 참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내조'했다는 표현은 고창군에 주둔하던 왕건의 진영에 방문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고창전투 승리 직후인 930년 1월 그동안 향배를 결정하지 못하던 永安(안동 풍산), 河曲(안동 임하), 直明(안동 일직), 松生(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의 30여 군현이 내항하였다. 2월에는 溟州(강릉)에서 興禮府(울산)에 이르는 동해안 연안의 110여 城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

라 朝廷의 내부사정-> ≪新羅文化≫ 27, 2006, 13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전투의 승리는 고려가 후삼국 쟁패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조는 선필을 후하게 대우하고, 상보(尙父)로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안현과 진보현을 합하여 보성부로 승격시키고, 그 곳을 선필이 관할토록 한 조치도 포함되었을 법하다. 보성부(재암성)는 930년 1월 이후 931년 2월 선필이 태조의 경주 방문 때 선발대로 공을 세운 시점을 전후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70]

왕건이 선필을 상보(尙父)로 칭한 것도 자못 의미가 컸다. 925년 10

70) 진보현에는 922년 이전부터 진보성주 홍술이 활동하고 있었다. 홍술은 922년 11월 고려에 귀부하였고, 이듬해 11월에 아들 왕립을 보내 갑옷 30벌을 바쳤다. 이후 926년에서 927년 사이에 진보성에서 문소군으로 이거하면서 의성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929년 7월에 견훤의 의성부 침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반면, 선필이 활동한 지역은 진안현이었던 듯하다. 그는 홍술이 사망한 이후 930년 정월에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로 인해 고려는 古昌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왕건은 선필을 상보(尙父)로 부르는 등 두터운 대우를 해 주었다. 이즈음에 진보현과 진안현을 통합하여 보성부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홍술의 사망으로 의성부와 진보현에 공백이 발생했고, 인근에 위치한 진안현의 선필이 큰 공을 세웠다. 이에 진보와 진안 두 지역을 합해 보성부로 승격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보성부(재암성)는 진보현과 진안현을 합하여 930년에서 931년을 전후한 시기에 설치한 고려의 '府'였다. 진보성은 진보현에 설치된 治所城이었으나, 현재 이 성의 존재와 위치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조선후기의 고지도에 邑治 중앙에 객사와 향교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土城'이 표현되어 있다. 혹시 이 토성이 진보성의 옛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진안현은 영덕현의 서쪽 40리에 있는 達老山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치소성인 眞安城은 곧 達老山(古)城이었던 듯하다. 이 성은 현재 '영덕 鳳山里城址'로 추정된다. 보성부(재암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진보현, 진안현, 혹은 두 군현 영내의 제3의 지역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보성부는 진보현에 진안현을 합하여 설치되었고, 재암성이 곧 진보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월 (2차) 조물성 전투 후 양국이 화친할 때 견훤의 나이가 10년 연상이므로 상보라 하였고, 935년 견훤이 귀부하자 다시 상보로 칭하였다.[71] 예천 境淸禪院 慈寂禪師 洪俊(882~939)의 재가제자였던 金善紹도 상보였다.[72] 고려 경종은 즉위 직후인 975년 11월에 자신의 장인인 경순왕 金傅를 尙父令에 책봉하였다.[73] 선필은 태조로부터 견훤이나 경순왕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고 추측해도 어긋나지 않을 듯하다.

고창전투 승리 후 태조는 930년 2월에 신라에 승첩 사실을 통보하였다. 경순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고 왕건을 경주로 초빙하였다. 왕건의 신라 방문은 곧바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931년 2월 9일 경순왕이 사신을 보내 다시 초청하였다. 이에 왕건은 931년 2월 23일 경주를 방문하여 5월 26일까지 3개월 이상을 머물렀다.[74] 이때 선필은 50여 기만을 이끌고 방문한 왕건의 선발대로 경주에 입성하여 경순왕에게 起居를 문안하였다. 아마, 경주에서의 체류 기간이나 영접 절차와 회담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주에서 왕건과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물론 신라조정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931년 이후 선필의 행적은 ≪고려사≫ 등의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崔彦撝가 찬하여 939년에 건립된 풍기 비로암의 <진공대사비>에는 '國父 崔善弼 大將軍'으로 등장한다. 939년에 건립된 비문에서 '국부'와 '대장군'으로 칭해진 것이다. '국부'는 '상보'의 다른 표

71) ≪고려사≫ 권1, 태조 8년 10월 을해 및 태조 18년 6월.
72) 박영제, 1996, <경천선원 자적선사 능운탑비>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下, 혜안, 138쪽.
73) ≪고려사≫ 권2, 경종 즉위년 10월 갑자 ; ≪삼국사기≫ 권12, 경순왕 9년.
74) 全基雄, 앞의 책, 1996, 136~138쪽 ; 曺凡煥, <高麗 太祖 王建의 對新羅政策> ≪古文化≫ 55, 2000, 120~121쪽 ; 류영철, 앞의 책, 2005, 174~17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현으로 보이지만, 그를 더욱 우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관직이 '장군'에서 '대장군'으로 높여진 것도 주목된다.

이상, 선필은 경주최씨 출신으로, 신라에서 파견된 진안현의 지방관에서 장군(호족)으로 자립하였다. 그는 경상도 북부지역에 웅거하면서 고려와 신라의 외교 문제에 많은 공을 세웠다. 특히, 930년 古昌전투의 승리에 일조하면서 태조로부터 상보(尙父)로 불리는 등 높은 대우를 받았다. 그는 후삼국 통일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보현이나 진안현 등의 土姓에 최씨가 없어, 후손들이 해당 지역의 재지세력으로 정착하지 못한 듯하다. 지방관에서 호족으로 성장했고, 고려에 귀부한 이후에는 개경으로 상경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이유로 고려시대 이후 선필과 관련된 사료를 남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진보성주 홍술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Ⅲ. 청송 지역의 호족과 선종불교

청송 지역의 호족이었던 재암성장군 선필은 선종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로암 진공대사 □운(855~937)과 결연하고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운의 활동을 선필을 비롯한 정치세력과의 결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운은 855년(문성왕 17)에 경주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金씨로 聖韓-내물왕의 후예였다. 할아버지(金珊珎)는 執事侍郎, 아버지(金確宗)는 司兵員外를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薛씨였다. □운은 10살(864)에 공부를 시작하여, 12살부터 인근에 알려지고, 13살(867)에는 명성이 서울에서 으뜸이었다고 한다. 이후 □운은 868년경 迦耶山의 善融화상에게 출가하고, 874년(경문왕 14) 같은 절의 수도원에서 구족계를 받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다. 그가 출가·수계한 곳은 熊(川)州의 普願寺로 보이며, 수계 후 교학(경전), 특히 화엄사상을 익혔을 것이다. 그러던 중 875~6년 사이 보원사를 떠나게 되는데, 이 때 화엄에서 禪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원사를 떠난 □운은 한 禪廬에 이르러 선승을 만났다. 이 선승은 도의-염거를 이은 인물로, 그를 통해 雪岳 일대의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陳田寺에 이르러 道義의 靈塔을 참례하고 제자의 예를 올렸다. 870년대 중반경 설악 일대는 진전사, 億聖寺(禪林院) 등을 중심으로 한 迦智山門 北山계[75]의 근거지였다. □운이 설악을 찾은 것은 북산계를 도의의 적통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운은 자신의 법계를 곧바로 도의와 연결시키고, 鄕僧인 恒秀선사를 내세워 西堂 智藏의 입을 통해 도의-□운으로 이어지는 법계와 관련된 '妙識說'[76]을 내세웠다. 설악에서 도의의 사상을 계승하고 스승의 선풍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던 듯하다. 이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870년대 중반부터 진전사 일대에 머물던 □운은 890년대 말 3년 정도 인근을 순력하였다. 그 후 경주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김해로 갔다. 당시 김해는 金(蘇)律熙 형제의 후원으로 봉림산문이 개창되었고, 여러 선승들이 머문 선종의 요람이었다.[77] □운이 머문 곳은 알 수

75) 김두진, 앞의 책, 2007, 178~179쪽 ; 曺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硏究≫, 景仁文化社, 2008, 23~25쪽. 여기서는 보림사 계열을 '體澄계', 진전사·억성사 계통은 '北山계'로 파악하였다.

76) 박윤진, <신라말 고려초의 '佛法東流說'>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232~233쪽.

77) 崔柄憲, 앞의 논문, 1978, 416~431쪽 ; 배상현, <眞鏡 審希의 활동과 鳳林山門> ≪史學硏究≫ 74, 2005, 111쪽 ; 曺凡煥, 앞의 책, 2008, 92~94쪽 ; 구산우, 앞의 논문, 2008, 170쪽 및 184~186쪽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146~149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없지만, 김율희 형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가 머물던 사원은 크게 번성하여 유가종(법상종)의 학승들이 찾아와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운이 김해를 떠난 것은 그럴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아마 충담이 "甲兵의 기색", 이엄이 "賊徒의 소굴과 접한" 이유로 김해를 떠난 것[78]과 비슷했을 것이다. 920년 10월에 견훤이 大良(합천) 등을 탈취하고 進禮郡으로 진격하자, 고려에서 원병을 보내 구원하였다.[79] 충담과 이엄의 사례, 고려의 원병 파견, 심희의 입적 시기(923) 등으로 보아, □운은 920~3년 즈음에 김해를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김해를 떠난 □운이 머문 곳은 王能長의 高鬱府(영천), 崔善弼의 載岩城(보성부, 진보), 基州(풍기)의 小伯山寺 등이었다. 이 지역은 고려와 후백제가 후삼국 쟁패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I)-① (김해를 떠나) (결락) 官舍에 머물렀는데 王能長 佐丞이 四事를 공급하며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니, 마침내 잠시 위태로운 길을 곁에 두고 도움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國父 崔善弼 大將軍은 법성이 견고한 성벽과 자비로운 집의 주춧돌과 같았는데, 靈境에 머물 것을 청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울 때는 갈옷을 추울 때는 갓옷을, 때에 맞추어 밀과 보리, 白餐(來牟白餐)을 지원하였으며, (결락) 들었다. 달이 軍營을 비추니 향기로움이 전단나무에 풍기며, 구름이 宮殿에서 일어나니 그윽하게 치자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것 같았다.(<풍기 비로암 진공대사비>)

② 高鬱府將軍 能文이 士卒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그 城이 신라의 王都와 가까워 노고를 위로하고 돌려보냈다. 다만 麾下인 侍郎 近盃와 大監 明才·相述·弓式 등은 (개경에) 머물게 하였다.(≪고려사≫ 권1, 태조 8년 10월 기사)

78) 崔柄憲, 앞의 논문, 1978, 428~431쪽.
79) ≪고려사≫ 권1, 태조 3년 10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운이 김해를 떠나 머문 곳은 왕능장의 고울부(金剛城)였다.[80] 왕능장은 영천의 호족으로 ≪삼국사기≫·≪고려사≫·≪고려사절요≫ 등의 高鬱府將軍 能文,[81] ≪경상도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보이는 金剛城장군 皇甫能長[82] 등과 동일인으로 보는 것[83]이 맞을 듯하다. 능문(왕능장)은 925년 10월에 고려로 귀부하였으나, 왕건은 신라의 王都에 가깝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그의 귀부가 견훤을 자극하여 927년 9월 고울부를 습격·함락시키고 경주를 위협했다. 그리고 927년 11월 후백제 견훤군은 경주의 鮑石亭으로 침공하여 경애왕을 자진시키고, 金傅를 경순왕으로 즉위시켰다.[84] 이에 왕건은 정예 5천을 거느리고 진격해 팔공산 桐華寺 인근에서 公山전투가 벌어졌으나 고려군이 대패하였다.[85]

□운은 왕능장의 귀의를 받고 나서, "官舍에서 잠시 위태로운 길을 곁에 두고 머물렀다"고 한다. 그가 고울부에 머문 것은 대략 920년대 초에서 927년 고울부가 함락되는 시기 전후였을 듯하다.

한편, □운은 927년 9월 후백제의 공격으로 고울부가 와해되는 시

80) 황보능장은 臨皐(현 영천시 임고면) 출신이며,(李樹健, 앞의 책, 1984, 48쪽) 금강성은 영천시 고경면의 '대의동 성지'라고 한다.(李炯佑, ≪新羅初期國家成長史硏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138쪽)

81) ≪삼국사기≫ 권12, 경명왕 2년 10월 ; ≪고려사≫ 권1, 태조 8년 10월 기사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10월.

82) ≪경상도지리지≫ 안동도 영천군 연혁 및 인물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영천군 인물.

83) 李樹健, 앞의 책, 1984, 62~63쪽 주65 및 161쪽 ; 尹熙勉, 앞의 논문, 1982, 66~67쪽 ; 金甲童, 앞의 책, 1990, 99쪽 주33.

84) 권영오, <후배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韓國古代史探究≫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85) ≪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9월 ; ≪삼국사기≫ 권50, 열전 견훤 ; ≪삼국유사≫ 권2, 후백제 견훤 ; ≪고려사≫ 권1, 태조 10년 9월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0년 9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기를 전후 해, '國父 최선필 대장군'에게 의탁하였던 듯하다. 최선필은 □운에게 '靈境'에 머물 것을 청하고, 의복과 음식 등을 지원하였다. '국부 최선필 대장군'은 곧 '재암성 장군 善弼'과 동일인이었다. 당시 최선필은 진안현의 達老山(古)城의 장군이었으므로, '영경'은 곧 진안현 인근에 위치한 사원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인지 알 수는 없다.[86] 선필은 930년 1월 고창전투가 진행 중일 때 고려로 귀부하였는데, 그의 극적인 귀부에는 □운의 조언이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필이 근거하던 진안성에 머물던 □운은 다시 태조의 초청으로 基州(풍기)의 小伯山寺로 이석하였다. 기주 즉 풍기는 죽령로를 통해 舊신라지역으로 진출하는 요충지였다.[87] 태조가 소백산사를 중수하고 □운을 초청한 것은 전략적인 요인과 선승을 포용하는 불교정책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태조와 □운이 직접 만난 시기는 931년(태조 14) 7월경이었다. 그러나 태조가 □운을 소백산사로 초빙한 것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였다.

> (J) 멀리 남방으로부터 북쪽 경계에 와서 의례하고 小伯山寺를 중수하여 그곳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대사가 갑자기 조칙을 받드니 원래 품은 간절함과 은근히 부합하였으므로, 문득 몸을 옮기니 바야흐로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부응하였다. 겨우 蓮扉를 열자 사람들이 벼와 삼이 줄을 이루듯 모여들고, 茅舍를 넓히자 복숭아와 오얏나무 밭에 길을 이룰 정도였다. 長興 2년(931) 추7월 특별히 (결락) (임금께서) 전쟁을 끝내시고 바야흐로 가마를 돌려 직접 뵙고 예를 올리는 정성을 펴려고 잠시 가마를 멈추어 공경히 理窟에 이르니 마치 黃帝가 廣成子에게 도를 묻는 것 같았으며(崆峒之問), 또한 하늘에서 얽매

8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영덕현 불우조에는 玉泉寺(岩谷山), 獅子岬寺와 龍泉寺(大芚山)가 수록되어 있다.

87) 노대환, 앞의 논문, 2008, 216~217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 임 없이 노니는 것 같았다.(汗漫之遊) 경건히 눈처럼 흰 눈썹을 우러러보며 말씀 듣기를 바라니, 대사가 답하기를 "齊나라 황제가 북으로 순행하여 僧稠를 예로서 대하여 3번을 방문하여 맞아들이고, 隋나라 황제가 동쪽으로 순행하여 (결락)" 문득 즐거워했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운 기색이 많았으니 어찌 이와 비교할 수 있으리요!.(<풍기 비로암 진공대사비>)

□운이 최선필의 지원을 받다가 소백산사로 옮긴 것은 931년 7월 이전이었음은 분명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태조가 소백산사를 중수하여 머물기를 청하였고, □운이 주석하자 사람들이 붐볐고, 사원을 중수했던 것으로 전한다. 또 □운이 "이 산에 머문 지 7·8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운의 소백산사 이석은 931년보다는 제법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조가 929년 7월에 기주를 방문하여 州鎭을 안무한 사실이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서 확인이 된다.[88] 혹시 □운이 소백산사로 이석한 시기가 이즈음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추정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929년(태조 12) 7월경에 □운이 소백산사로 이석했고, 약 6개월 후인 930년 1월에 선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렇다면 왕건은 선필이 직접 귀부하기 전에 그가 후원하던 선승인 □운을 소백산사로 초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전부터 친고려적인 성향을 지닌 선필이었기에 가능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운을 통해 선필의 귀부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운은 927년에서 929년까지 대략 2~3년 정도 선필의 후원을 받으면서 진안현의 사원에 머물다가 소백산사로 이석했던 셈이다. 한편, 고려 태조가 직접 □운이 머무는 소백산사를 방문한 것은 931년 7월이었다. 이 만남은 931년 2월에서 5월까지 경주에 머물다가 귀경하는 도중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필도 동

88) ≪고려사≫ 권1, 태조 12년 7월 기묘 및 9월 을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행했던 듯하다.

□운과 태조의 두 번째 만남은 937년(태조 20)에 이루어졌다. 왕건은 통일 직후 전국의 승려들을 개경으로 초청하였다. 이에 각지의 道人과 禪侶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태평의 공업을 찬양하였다.[89] 노구의 □운이 937년 2월 '付囑'을 내세워 기주(풍기)에서 개경으로 간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후 □운은 다시 소백산사로 되돌아온다. 그가 937년 9월에 입적하였으므로 몇 개월 남짓 개경에 머물렀다. □운은 소백산사의 법당에서 입적했으며, 춘추 83, 법랍 63세였다. 전법제자는 玄讓 등 400여명이었다. 태조는 현양·行熙와 金敏□ 등의 요청으로 시호 眞空과 탑호 普法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崔彦撝에게 비문을 짓게 하여, 2년 후인 939년 8월에 비를 세웠다.

이상에서처럼 920년에서 930년대에 걸쳐 □운의 단월로 그의 비에 등장하는 왕능장과 최선필 등은 고려·후백제의 경상도 북부지역을 둘러싼 쟁패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호족들이었다. 그들이 귀부하자 태조는 왕(황보)능장에게는 王씨성을 賜姓하는가 하면, 선필의 경우에는 상보(尙父)로 호칭하면서 극진히 대우해 주었다. 그런데 이들은 □운의 조언과 자문으로 고려로의 귀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운 929년 7월 태조의 초빙으로 기주의 소백산사(비로암)로 이석하였다. 이듬해인 930년 정월에 있었던 선필의 고려 귀부는 □운을 매개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운이 머물렀던 고울부, 재암성 등은 920년에서 930년대를 전후한 후삼국 쟁패기에 고려·후백제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태조 왕건과 최선필 등의 호족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세력들의 연결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 □운이라는 선승었다. □운과 선필의 결연은 나말

89) 김두진, 앞의 책, 2006, 118쪽 ; 최인표, 앞의 책, 2008, 202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려초 선승과 호족의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90]

Ⅳ. 맺음말

나말려초는 우리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 중 하나였다. 신라의 구질서가 쇠퇴하고, 후삼국을 거치면서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전환되어 나갔다.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변동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사회의 역동성이 어떤 시기보다 강열하게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변동을 이끈 주인공을 흔히 豪族이라고 한다. 호족은 새로운 사상조류였던 禪宗과 밀접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은 청송(진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호족인 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나말려초에 활동한 3명의 홍술이 사료 상 존재한다. 고려 개국공신인 洪儒의 초명이 洪術(弘述)이며, 진보성주 홍술, 의성부 성주장군 홍술 등이 그들이다. 홍유와 홍술은 다른 인물이나, 진보성주 홍술과 의성부 성주장군 홍술은 동일인이었다. 홍술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義城인지 眞寶인지 논란이 있다. 현전하는 사료에 의하면 홍술은 聞韶郡(의성)의 吏職者(村主)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삼국이 정립하는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領縣인 진보현의 호족으로 自立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주였던 홍술은 922년 인근의 聞韶城이 甄萱에 의해 함락되자 고려에 귀부했던 듯하다. 그는 922년 11월 고려에 귀부하였고, 923년 11월에 아들 王立을 보내 개경에서 숙위토록 하였다.

90) 이상 제3장의 자세한 내용은 정동락, 앞의 논문, 2009를 참조하기 바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태조는 왕립에게 元尹의 관계를 내리는 등 그를 우대하였다.

이후 홍술은 929년 의성부의 성주장군으로 사료에 다시 등장한다. 아마, 진보현에서 자신의 출신지였던 문소군으로 옮긴 듯하다. 그가 移居한 시점은 曹物城 전투 후 고려와 후백제가 맺은 화친이 깨진 926년 4월 이후, 927년 7월 대야성을 회복하기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태조의 요청에 호응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이때 문소군에 高丘縣을 합하여 義城府가 성립되었던 듯하다. 의성부에서 홍술은 경상도 북부지역에 대한 후백제의 進攻을 저지하고, 친고려적인 세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진력하였다. 그러다가 929년 7월 甄萱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左右手를 잃었다고 비통해 했다. 홍술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전사와 의성부의 상실이 뼈아팠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술에 뒤이어 청송 지역의 호족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善弼이었다. 이 시기에는 사료 상 2명의 선필이 나타난다. 재암성장군 善弼과 왕건의 제29부인인 海良院夫人의 아버지인 宣必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별도의 인물로 여겨진다. 재암성장군 선필은 경주최씨 출신으로, 신라에서 眞安縣으로 파견한 地方官에서 호족으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진성여왕대의 혼란을 거쳐 후삼국 정립기를 전후하여 자립했던 듯하다. 선필은 930년 정월에 고려로 '來投'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태조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아마도 920년 태조와 경명왕의 交聘을 기묘한 계책으로 성사시켜 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선필은 그 후 여러 차례 양국의 외교교섭에 관여하여 태조의 신임이 두터워졌던 듯하다.

930년 정월에 선필이 고려에 귀부할 당시는 眞安城장군이었을 것이다. 이때는 고려와 후백제의 古昌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고창전투는 929년 12월에서 930년 정월까지 약 2달간 벌어졌다. 선필의 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부로 팽팽하던 전황이 고려로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고려가 후삼국 쟁패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태조는 선필을 후하게 대우하고, 상보(尙父)로 칭했다.

이후 왕건이 931년 2월부터 5월까지 경주를 방문하여 3개월 이상을 머물 때, 선필은 선발대로 경주에 입성하여 경순왕에게 起居를 문안하였다. 태조의 경주 체류와 회담의 형식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라의 지방관 출신의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고려는 물론 신라조정에서 차지하는 선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보성부(재암성)는 선필이 930년 1월 귀부 이후 931년 2월 경주 방문 때 선발대로 공을 세운 시점을 전후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진안현에서 성장한 선필은 930년 고려에 귀부한 뒤 진보현을 중심으로 보성부가 성립되면서 이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진보에서 의성지역으로 옮겼던 홍술과 비슷한 경우이다.

재암성장군 선필은 선종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9산선문 중 迦智山門 출신의 禪僧인 眞空대사 □運(855~937)을 지원하였다. □운은 道義-廉居-體澄으로 이어지는 장흥 寶林寺의 普照體澄과는 다르게, 도의-진공으로 연결된 법계를 주장한 선승이었다. 그는 900년대 초반 김해에서 金(蘇)律熙 형제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920년 10월에 견훤이 大耶城(합천)을 공취하고 進禮郡으로 진격해 사정이 급박하게 되자, 김해를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운이 머문 곳은 王能長의 高鬱府(영천)였다. 왕능장은 영천의 호족으로 高鬱府將軍 能文, 또는 金剛城장군 皇甫能長과 동일인으로 여겨진다. □운은 왕능장의 귀의를 받고 官舍에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능문(왕능장)은 927년 9월 견훤이 고울부를 습격하자 함락되고 말았다. □운이 고울부에 머문 것은 대략 920년대 초에서 927년 즈음이었던 듯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고울부를 떠난 □운은 '國父 최선필 대장군'에게 의탁하였다. 최선필은 곧 '재암성장군 善弼'과 동일인물이었다. 최선필은 □운에게 '靈境'에 머물 것을 청하고, 의복과 음식 등을 지원하였다. 당시 선필은 진안현의 達老山城 장군이었으므로, '영경'은 곧 진안현 인근의 사원이었을 것이다. 선필은 930년 1월 고창전투가 진행 중일 때 귀부하여 고려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그의 극적인 귀부 이면에는 □운의 조언이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필이 근거하던 진안성에 머물던 □운은 다시 태조의 초청으로 基州(풍기)의 小伯山寺로 이석하였다. 기주(풍기)는 竹嶺路를 통해 舊신라지역으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가 소백산사로 옮긴 시기는 929년 7월 즈음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추정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운이 소백산사로 이석한 지 6개월 후에 선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렇다면 왕건은 □운을 통해 선필의 귀부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태조가 직접 소백산사로 □운을 방문한 것은 931년 7월이었다. 이 만남은 931년 2월에서 5월까지 경주에 머물다가 귀경하는 도중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암성장군 선필도 동행했을 듯하다.

920년에서 930년대에 걸쳐 □운의 단월이었던 왕능장과 최선필 등은 고려·후백제의 경상도 북부지역을 둘러싼 쟁패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호족이었다. 이들이 귀부하자 태조는 왕능장에게는 王씨성을 賜姓하고, 선필에게는 상보(尙父)로 호칭하는 등 우대하였다. 한데, 이들은 □운의 조언과 자문으로 고려로의 귀부를 결정했던 듯하다. □운이 머문 고울부와 재암성, 기주(풍기)는 후삼국 쟁패기에 고려·후백제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이 지역에서는 태조와 왕능장, 최선필 등의 호족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이 두 세력의 연결을 매개한 한 인물이 □운이었다. 특히, □운과 선필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결연은 선종과 호족의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글은 청송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호족이었던 홍술과 선필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선필과 선종승려인 □운의 결연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시야를 넓혀 나말려초 府의 성립, 호족과 선종의 결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아울러, 홍술과 선필의 관계나 이들이 활동했던 진보현과 진안현, 그리고 재암성(보성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참고문헌】

1. 저서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硏究≫, 혜안, 2011.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0.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김철준,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景仁文化社, 2005.

문경현, ≪新羅史硏究≫,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신호철,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신호철,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 1996.

신호철,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2008.

이기백,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이수건,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伽山文庫, 1994.

이형우, ≪新羅初期國家成長史硏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전기웅,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정청주, ≪新羅末高麗初 豪族硏究≫, 一潮閣, 1996.

조범환,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硏究≫, 景仁文化社, 2008.

池內宏, ≪滿鮮史硏究≫(中世) 2책, 1937.

최규성, ≪高麗 太祖 王建 硏究≫, 주류성, 2005.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한국역사연구회, ≪譯註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199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2. 논문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권순철·김현정, <榮州 毘盧寺 樓閣新築敷地 발굴조사의 성과> ≪新羅史學報≫ 13, 2008.

권영오, <후배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韓國古代史探究≫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1960.

김광수,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1979.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歷史學報≫ 188, 2005.

김태식, <≪三國史記≫ 地理志 新羅條의 史料的 檢討-原典 편찬시기를 중심으로->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寶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2008.

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 ≪朝鮮學報≫ 41, 1966.

박윤진, <신라말 고려초의 '佛法東流說'>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배상현, <眞鏡 審希의 활동과 鳳林山門> ≪史學研究≫ 74, 2005.

변동명, <城隍神 金洪術과 義城> ≪歷史學報≫ 189, 2006.

윤경진, <나말려초 성주(城主)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실≫ 40, 2001.

윤희면, <新羅下代의 城主·將軍-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9, 1982.

이기동,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內亂期 신라 朝廷의 내부사정-> ≪新羅文化≫ 27, 2006.

이형우, <古昌地方을 둘러싼 麗濟兩國의 각축양상> ≪嶠南史學≫ 창간호, 1985.

전기웅, <羅末麗初 地方出身 文士層과 그 역할> ≪釜山史學≫ 18, 1990.

전덕재, <고대 의성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9, 2012.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정동락,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동락, <新羅 下代 禪宗史 硏究動向>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정요근,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2009.
정요근, <서평 : 구조와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고려시기 지방제도를 복원하다-윤경진, ≪高麗史≫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조범환, <高麗 太祖 王建의 對新羅政策> ≪古文化≫ 55, 2000.
최병헌,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최종석,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 200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ABSTRACT

Powerful Clan in the Cheongsong Region during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Jung, Dong-lak

The end of Silla and the early Goryeo period was a period of the greatest turbulence in Korean history. Along with the decline in the old order of Silla, there was a shift to the system of the new country of Goryeo as the region passed through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in many aspects began from local regions rather than the central region. The dynamics of local society was exhibited more intensively than any other period. The heroes who emerged as the new political power and led such social changes during this period are commonly called powerful clans. A powerful clan is thought to be close to a Zen sect, which was a new ideological trend. This article is a case study on the lord of a castle in Jinbo, Hong Sul, who is a member of a powerful clan that were active mainly in the Cheongson(Jinbo) region, and a general of Jeamseong(castle), Seol Pil.

Hong Sul was originally a descendant of a person with official duties(chief of the village) at Munsogun, and he progressed to become the lord of a castle in Jinanhyeon during the turbulent times in the period at the end of Silla and early Goryeo. After that, he moved to the Euiseong region, which was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in a broad sense an administrative unit, and became a representative of a powerful clan of the region ; however, he died in the battle from the attack of Gyeon Hwueon during the struggle for supremacy between Goryeo and later Baekjae over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sang-do.

Seon Pil was from the Gyeongju Choi family, and he established himself independently as a general(powerful clan) who arose from being a local high officer of Jinanhyeon dispatched by Silla. While holding and defending his own territory in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sang-do, he performed many meritorious deeds in the diplomatic issues of Goryeo and Silla. In particular, as he contributed to the victory of the Gochang combat in 930, he was treated very well by King Taejo.

Meanwhile, Seon Pil was also interested in the Zen sect of Buddhism. He sponsored Jin Gong-□woon(□運, 855~937), a high Zen Buddhist priest from Gajisanmun among the Gusan-Seonmun. In particular, □woon stayed at the Buddhist temple of Jinanhyeon while being sponsored by Seon Pil for about 2~3 years from 927~929, and he was relocated to the temple in Sobaeksan(Mt.) at the invitation of King Taejo.

The region where □woon stayed was a strategic location where both Goryeo and later Baekjae engaged fiercely in heated competition during the period of struggle for supremacy in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from around the 920s~930s. In this region, King Taejo and a powerful clan including Choi Seon-pil were closely related. It was □woon who mediated the connection of these two powers. The alliance of □woon and Seon Pil and others is a case that shows the collaborative pattern of a Zen sect and a powerful clan during the early Silla and late Goryeo period.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

Key words : end of Silla and early Goryeo, powerful clan(豪族), Hong Sul, Seon Pil, Zen sect Buddhism, Jin Gong high Buddhist priest

논문 투고일 : 2013. 11. 26. 심사 완료일 : 2013. 12. 16. 게재 확정일 : 2013. 12. 2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30 15:55(KST)